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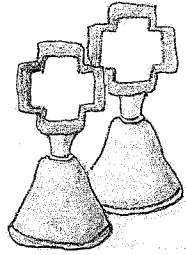
김성국

봄이 올 때까지
겨울은
허리 한번 못 세우고
꼭 찬 무개를 견뎌야 했지요

아내를 알기까지
내 인생 절반을
고양이 송털 같은 살
가지런히 맞대며 살아냈지요

그러나
당신 향한 몸부림
숨겨진 당신 숨소리
하늘과 땅 끝으로
숨죽여 찾고 찾으려
끝날에야 알려 주시려나요

땃줄에서 영원까지
굽은 길 한 오라기씩
당신 손에 끌리며
걸고 또 걸어야 하는
끝도 다함도 없는
구도의 길



“산빛이 가늘게 어깨를 눌렀다”
- 수록담채화. 김호석 1977작-
산자락 곁에서 땅 일구며 모질지 못하게 살아 온 세월을 이제는 어깨에 지고 삽니다. 한 평생을 서로 말없이 의지하며 살아 온 노인과 땅, 차마 헤어지지 못해 산빛을 친구하며 어깨동무 했습니다. 곱게 멘 대님에는 세상사 겸손하게 살아야 한다는 단정한 마음이 보입니다.

교 회 목 표 하나님만이 삶과 교회의 주 인	예수님 안에 담이 있습니다(빌4:13) 갈 보 리 교 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교회생활지침 누가 10:37 *자원함 -섬김과 봉사 *의명성 -명예
제9권 39호	기초성경공부이수. 정장으로 예배. 남 이야기 금지	2007년 9월30일
☎ 369- 5077. Howe St. City(Ak Girls Grammar School Hall)		www.calvary.org.nz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선교**



1991년 동인천 만석동 달동네에 네 명의 외국인 신부들이 들어왔습니다. 주민들은 그 신부들이 외국인일 뿐이지 다른 선교사들과 마찬가지로 자기들을 귀찮게 하리라 여겨 처음에는 들어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신부들은 "예수 믿으라"는 이야기는 한 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종일 동네를 돌아다니며 주민들과 어울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마늘을 까고 있는 아주머니들 사이에 끼여 매운 내에 눈물 흘리며 거들고, 마을의 문제라면 자기 일처럼 참여하고, 마을 공부방에서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면서 주민들과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과 친해진 이후에도 예수를 믿으라거나, 가톨릭 신자가 되라는 소리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신부들은 7년 동안 달동네 주민들과 함께 살았을 뿐이다. 그러면 선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공부방에서 만난 자원 봉사자들이 모두 서른 명이었는데 가톨릭 신자는 두 명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서른 명 모두 가톨릭 신자가 되었어요. 지금 그들 중 몇 명이 만석동에 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살고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 다가오거나 멀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말하기보다는 선한 행동을, 교리를 알리기보다는 먼저 삶을 함께 하는 '24시간 선교사'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따라 행하기▶
내 이름이 적혀진 성경책을
가지고 다녀라
성경책과는
이산가족이 되지 말아라

◀인품따라 행하기▶
명성은 아지랑이이고
인기는 우연이며
부(富)에는 날개가 있다.
오직 한 가지 영속하는 것은
성품이다

주 일 예 배

(* 표에 일어서시기 어려운 분은 앉으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생각 하는 연주 찬양

목도와 참회의 기도 Pray & Confession	Calvary(성가대)	다 같이
*찬 송 Hymn	24장	다 같이
*신 앙 고 백 Apostle's Creed	사 도 신 경	다 같이
찬 송 Hymn	206장	다 같이
기 도 Pray		이재영 안수집사
성 경 봉 독 Scripture Reading	여호수아6:1-7/15-20	인 도 자
성가대 찬양 Choir		나무십자가 성가대
설 교 Sermon	싸울 준비가 안 된 전쟁	김성국 목사
찬 송 Hymn	382장	다 같이
헌 금 기도 Offering Pray		인 도 자
교 회 소 식 Welcome & Announcements		인 도 자
응 답 송 Response Song	여기에 모인 우리	다 같이
축 도 Benediction		김성국 목사

성전건축헌금 지난주일: \$44 총액: \$ 389,449.70

◆10월 예배위원◆

일자	기도	주차안내	안 내
7	권광순	최현철 서재오 항촌직	<현관>
14	임병숙		권광순 정희자
21	임혜자		<성전입구>
28	정관영		임혜자 <새교우> 이광희 장유진

◆10월의 교회력◆

주 일	모임 행사
7	정기구역예배(12)
14	헌신예배(성가대 17일)
21	
28	종교개혁주일 익투스살롱 수요찬양(31)

『교 회 생 활』 2007 신앙생활:하루에 7분기도하기 매일 가족 위해 5분 매일 교회 위해 1분 매일 남을 위해 1분	『교 회 등 록』 *3주간 예배,친교참석 이후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여러 교회를 다녀 보십시오. 그래야 신중하고 바른 판단이 됩니다
주일예배:아동,학생:오후 1시 수요예배: 7:30 pm	새벽기도회: 금 5:50 청년부:수요 7:00 pm

- 1.교우소식
*<등록> *이순옥 성도(5선.. 조수영.수환.석환 ☎309-7949 22High St. City
*정부돌 집사(5선.. 황지영 ☎416-0273
- 2.성전건축을 위한 "바자회 확대회의" <Tea Time 후.Dress Room>
*권사.장로.남여선교회장.구역장.청년회장.학생회장.실무위원
- 3.<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학생부 수련회를 위해 주방봉사하여 주신 선교회원들
께 고마움의 마음 표합니다. 양념 돼지고기 볶음,떡볶이,김밥,김치볶음 오므
라이스....어머니들의 손 끝에서 나온 맛난 음식을 앞에 두고 행복해 하는 우
리 아이들의 표정이 참 맑았습니다.]
- 4.Alpha 성경공부가 계속 진행중입니다.
<Morning Alpha>:토요일 아침 7:30.<Evening Alpha>:화요일 저녁 7:30
<직분자 Alpha> 주일 오후 2:45
- 5.예배좌석: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예배를 위해 1층에 자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교할 때 시선 두기가 좀 힘이 들기도 합니다.
*2층:유아부모
- 6.수요예배. <수요일 저녁 7:30분>
*밤이 조금 늦게 오는 계절입니다. 일주일 중 가운데 날에 서서 잠시 숨 고
르며 하나님 생각합니다.

◀착한 시인들▶ 두사람 곽재구

자전거 두 대가
나란히 꽃길을 지나갑니다
바퀴살에 걸린
꽃향기들이 길 위에
떨어져 반짝입니다

나 그들을
가만히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아는 하늘의 길 하나
그들에게 일러주고 싶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불러 놓고 그들의 눈빛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내가 아는 길보다
더 아름다운 길을 그들이
알고 있을 것만 같아서
불러서 세워 놓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